

통일 칼럼

### 이란 다음 북한 핵 협상

**최** 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의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어 이란의 대통령도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합의는 즉각 발효됐다.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은 이미 이틀간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양측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 사찰단의 이란의 핵시설 방문 여부 등을 둘러싸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란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시선은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이어온 북한으로도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예고한 직후, 자신의 SNS에 아무런 설명 없이 본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사진을 올린 것이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



정복규  
논설위원

회담 당시, 두 지도자가 호텔 정원을 산책한 사진이 공개된 바 있다.

4개월 가까이 지속된 이란과의 전쟁을 일단락 짓는 건박한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꺼내 든 속내는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을 향해 대화 손짓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력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사흘간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했다.

한미 간 확장 억제 협체인 핵협의 그룹의 개최와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정세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세계를 압도할 수준으로 국방 자산들을 늘려갈 것이라

고 말했다.

북한은 또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천 톤급 구축함, 최현호를 서해함대에 실건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열세였던 해군 전투력이 경이적으로 격상됐으며 해군의 핵 무장화가 정확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와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대규모 경제적 보상이 포함됐다.

이는 향후 협상에 따라 불법적으로 개발한 핵을 손에 권 채로도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선 보상, 후 핵 폐기'의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을 개발한 북한 입장에선 고무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사설

#### 환자 브로커 비용 필요경비로 위장... 결국 기소

검찰이 '환자 브로커' 비용을 병원의 '필요경비'로 위장해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내지 않은 유명인과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환자 브로커에게 지급한 대가를 병원 광고비로 위장해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하고, 약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서울 강남 유명 인과의원 원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대형 인과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안·백내장 분야 전문의로 소개된 유명 의사이다.

그는 브로커에게 수년에 걸쳐 소개비 등 명목으로 약 61억원의 돈을 지급해 환자를 끌어모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

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병원의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 없었다. 세금을 회피할 방법을 찾던 A씨는 '자료상' B씨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 명목으로 61억원을 송금했고, B씨는 가까 세무계산서를 발급해 왔다.

B씨는 A씨에게서 받은 61억원에서 수수료를 떼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해 브로커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불법 마케팅을 벌여 환자를 A씨 병원에 소개했다.

검찰은 B씨와 C씨 등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포탈했던 각종 세금 약 37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 홍지안 기자 개인전 성료

현직 기자이자 서양화가로 활동 중인 홍지안 씨의 개인전이 지난 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차오름 2실에서 열렸다.

홍 작가에게 그림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과 기억, 그리고 순간의 인상을 담아내는 과정이다.

꽃은 작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꽃은 계절의 순환을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인 동시에 실패와 위로, 희망을 상징한다.

그는 화지 위에서 불감의 쉬임이 유화보다 좀 더 웅얼한 수채화 불감을 가지고 빛의 변화에 접근하고 있다. 수채 불감을 유화 불감처럼 살아올려 빛의 각도에 따라 변화되는 색을 표현하고 깊이를 준다.

배경에 플랜지를 그려 색의 깊이와 덩어리, 구도와 형태를 만들어

내고 좀 더 다양한 색을 팔레트가 아닌 화지 위에서 섞이도록 했다.

또 인상과 화풍의 점묘법을 돌림이로 바꿔 표현하고 어수선해질 수 있는 색변화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기 위해 비단양어를 그려 색상을 대비시켰다.

작가는 "때로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플랜지를 그리면서 받고, 때로는 좋지 못한 기억을 잊고 편안해지기 위해 그랬다"며 "그림은 작가만의 인상이 아닌 관람자의 인상이다"고 말했다.

홍지안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2015년까지 약 10년간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시간강사로 출강했다. 현재 전라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독자재언

####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예방, 모두의 관심 필요

최근 각종 국내·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응원하고 즐기는 문화는 건강한 여가활동이지만, 이를 악용한 온라인 불법 스포츠도박 또한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불법 스포츠도박은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전적 피해는 물론 학교생활 부각을, 범죄 연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인 만큼 불법 스포츠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괜찮다", "한 번쯤은 괜찮

다"라는 생각이 반복적인 도박 참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적지않습니다.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갖고 건전한 스포츠 응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건전한 스포츠 응원문화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거움과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불법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서지는 서림자구대 순경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사원으로 운구되는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유해



지난 3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의 모살라 사원에 올해 2월 28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이아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권이 운구되고 있다.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전쟁으로 인해 미뤄졌다가 미국과 휴전하면서 치르게 됐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